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와 사회적 배제*

이준엽** · 신형진***

Ⅰ 알기 쉬운 개요

오늘날 한국사회의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사회적 배제에 노출될 가능성에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다문화 청소년이 가지는 특징인 언어에 주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은 적응 과정에서 이민자 부모로부터 한국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배워, 두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이민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결과,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도 유창하게 사용하는 이민자가 영어만을 사용하는 이민자보다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이 유창하지 않다는 사실이 또래, 교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과 지역사회에서의 배제 가능성을 높이지만, 한국어만 유창하다면 다른 언어도 유창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교사들과의 관계와 지역사회에서의 배제 가능성을 낮췄다. 이로 볼 때,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유창한 한국어 사용이라는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사회적 배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한국어의 완전한 습득이 먼저 해결된 이후에 사용 언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용하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2S1A5C2A02092535).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교신저자, h.shin@knu.ac.kr

투 고 일 / 2024. 6. 7.
심 사 일 / 2024. 7. 30.
심사완료일 / 2024. 8. 8.

Ⅰ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그들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중언어구사(bilingualism)에 주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적응 유형에 따라 사회적 배제의 정도(degree)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북미의 선행연구들은 언어와 화자의 지위에 따라 이중언어구사가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 청소년의 압도적 다수가 한국인 아버지와 이민자 어머니 사이의 국제 결혼 자녀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출신국을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구사와 관련된 모계언어의 지위와 화자의 지위를 반영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1기 패널조사”의 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적응 유형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또래, 학교, 건강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언어적응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이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 언어구사자는 한국어 단일구사자에 비해 네 차원 모두에서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중언어 구사자들은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한국어 단일구사자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언어적응 요인은 한국어의 완벽한 구사이며, 모계언어의 대리변수인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에 확인화된 동화압력이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주로 언어를 통해 관계 맺는 또래 및 학교 차원에서의 배제를 넘어 건강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배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이중언어, 사회적 배제, 언어적응,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I. 서 론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및 중도입국자의 증가를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구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해오고 있다. 2016년 963,174명이었던 다문화가구는 2021년 1,119,267명으로 늘어났으며(통계청, 2022). 이와 함께 다문화 학생의 수도 2015년 82,536명에서 2020년 147,378명, 2023년 181,178명으로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교육부, 2023). 2023년 현재 181,178명의 다문화 학생 중 외국인 가정 자녀 40,372명을 제외한 129,910명의 학생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나타났다(교육부, 2023). 이러한 수적 증가의 상황 속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사회적 적응 과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경험에 주목한다. 사회적 배제 개념은 경제적 빈곤 개념을 확장해 단순히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포함하여(Bak, 2018), “사회적 연대의 결핍”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았다(Taket et al., 2009: 6-7).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연대의 결핍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소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배제를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다루어 사회적 배제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주목하였다(선남이, 2013; 강경래, 2014; 양숙자, 2017; 서경숙, 2023). 이는 비(比) 다문화 청소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김현주, 김준영, 2008; 김현주, 김준영, 2010; 김광현, 2020). 한편, 사회적 배제를 종속변수로 다루는 경우는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어 다문화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이중섭, 이용교, 2009; 최천근, 김복태, 2021).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청소년만의 특수한 요인으로 그들의 이중언어능력(bilingualism)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 담론에서 언어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게 된 계기는 세계 차원의 불평등이라는 맥락에서 발생한 대규모 국제이주와 관련이 깊다(Piller, 2012).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로 향한 국제 이동은 노동시장에서 이주민에게 주변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주민의 언어를 포함한 문화적 특성을 열등한 것이라는 편견을 선주민들이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배제의 기제로 작동하게 만든다(최혜지, 2019).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이주민으로 분류될 수 없지만, 그들 중 압도적인 다수가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결혼이민자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라는 점에서 소수자의 불리한 처지를 사회적 배제와 편견이라는 차원에서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들은 두 가지 다른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에 이질적인 문화간 접촉의 결과인 문화변용(acculturation)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한국어와 함께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적응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적응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포용과 배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이론적 자원으로부터 도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 개념은 경제적 빈곤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적 연대의 결핍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에 상관없이 사회의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권리, 재화 및 서비스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정(Levitas, 2000)”으로 규정되었다.

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의 연대 형성에 있어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연구자들과 고전적인 빈곤 개념에서의 다차원적 확장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의 개념 활용이 다르다는 데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자들은 또래, 교사와 같은 청소년의 사회적 연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회적 배제를 파악한다(Hitti, Mulvey & Killen, 2011; Plenty & Jonsson, 2017).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가정 배경,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학교에서의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적 배제를 결핍 상태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김현주, 김준영, 2010; 김광현, 2020).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이 가진 다차원적 측면과 역동적인 과정이 분리된다. 전자는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을 무시하고 특정한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후자는 사회적 배제의 역동적 과정을 무시하고 결핍 상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특수성과 연관된 관계 중심의 연대 개념과 경제적 빈곤 개념의 확장으로 보고자 하는 상태 중심의 결핍 개념이 중첩되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를 통합하여 다루지 않고,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또래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계 중심의 사회적 배제만을 다루거나, 거꾸로 청소년 발달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상태 중심의 사회적 배제만을 다루어왔다.

관계 중심의 사회적 배제는 주로 또래집단 내부에서의 역학 관계에서 거부와 고립, 따돌림 등의 특정한 행위로 나타난다(Hitti et al., 2011). 사회 영역 이론(social domain theory)은 또래집단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도덕적, 관습적, 심리적 영역에서의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Killen, Sinno & Margie, 2007). 한편, 집단 정체성 이론은 사회적 배제 행위의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집단과의 동일시 정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정체성의 집단적 기준이라고 설명하는데(Tajfel & Turner, 2000), 이러한 내집단의 정체성 기준은 주로 성별, 인종, 학급 분위기, 가정 배경 등에 의해 구성된다. 관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 개념을 활용할 때 고려되는 다차원적 특성은 또래관계에서의 배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요인들일 뿐,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연대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한편, 상태 중심의 사회적 배제에서 또래관계는 배제의 다양한 차원 중 하나로 간주된다. 배제의 형식은 배제의 행위가 아니라, 다차원적 자원에 대한 참여와 접근의 제한으로 논의된다(Bak, 2018). 그렇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개념을 적용할 때 또래집단에서의 배제를 포함하여 경제적 자원의 활용, 정책적 지원에서의 배제 등을 접근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로 함께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 중심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역동적 과정이나 청소년의 특수성은 무시되고, 사회적 배제는 단지 개인의 결핍 상태로 해석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배제의 ‘다차원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개인의 결핍 상태와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연대의 부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연대의 결핍을 보여주는 다차원적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 개념의 활용은 본 연구가 보고자 하는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에 더욱 적절하다. 다문화 청소년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수성을 가지기에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해야 할 뿐 아니라, 다문화 가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한국사회에서의 소수자성을 부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다차원적 과정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이중언어구사(bilingualism)와 사회적 배제

이중언어구사(bilingualism)는 일상생활에서 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중언어구사자들(bilinguals)은 주로 이민자의 자녀로서 부모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어와 학교나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공용어를 모두 습득한 경우, 국제결혼으로 태어나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경우, 또는 스위스나 벨기에 등에서처럼 보편적으로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성장하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이중언어구사자 중 압도적인 다수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결혼이민자인 가정 출신의 다문화 청소년이다.

국가 차원에서 언어 체제(language regime)는 이주민을 배제하는 핵심적 기제로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표준 공용어 사용자가 아니면 그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것을 향유할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Piller, 2012). 그러나 표준 공용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다른 외국어도 함께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구사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론(異論)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한국과 같이 단일 언어 편향이 강력한 사회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한 이중언어구사자들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언어의 지위(language status)와 화자의 지위(speaker status)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iller, 2012). 전자는 캐나다의 연구 결과에서처럼(Carliner, 1981; Pendakur & Pendakur, 2002), 공식 언어인 영어/불어 이중언어구사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임금에서 우위에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 밖의 이중언어구사자들은 오히려 영어만 구사할 수 있는 경우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현상과 관련이 있고, 후자는 이중언어구사자일지라도 화자가 주로 소수 인종/민족에 속하는 미국에서는 이중언어구사자가 영어-단일어구사자보다 소득에서 우위를 누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Fry & Lowell, 2003), 이중언어의 구사가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연결된다(Shin & Alba, 2009).

요약하면, 한국어가 유일한 법적 공용어이고, 다문화 청소년의 압도적 다수가 결혼이민여성의 자녀인 대한민국에서 언어의 지위와 화자의 지위에서 모두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구사는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중언어능력을 포함한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적응 유형을 그들의 사회적 배제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이를 검증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화자의 지위가 고려될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 대다수가 한국인 아버지와 이민자 어머니 사이의 국제결혼 자녀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출신국을 다문화 청소년이 집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의 대리변수(proxy)로 측정하고, 그것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화자의 지위를 추론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1기 패널조사”의 5차년도 (2015)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1년부터 실시된 이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10차년도에 걸쳐 1년 주기로 종단적으로 실시되었다.

2015년에 조사된 5차년도 자료의 조사대상은 중학교 2학년이며, 이 시기에 한국어 능력이 마지막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언어발달이 완성된 시기의 이중언어구사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은 발달 과정상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에 또래를 포함한 청소년의 주변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의 결과인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적응 유형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언어사회화의 과정보다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을 선택하였다. 그렇기에 이중언어능력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단자료를 활용함에도 횡단적으로 절단된 변수 간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동 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2기 패널조사”는 가장 최근의 자료이지만, 1기 패널조사와 달리 다문화청소년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1기 패널조사 5차년도에 해당하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에서 표본의 절대다수(96.3%)인 아버지의 국적이 한국이고, 어머니가 외국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고, 언어 능력 및 주요 변수에 대한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1,29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정도(Degree)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배제된 집단과 배제되지 않은 집단이라는 이분형 변수로 측정하기보다는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여 그 정도(degree)의 문제로 파악하고자 했다. 1990년대 이후 관련 연구에서는 퍼지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를 연속변수

로 측정함으로써 측정 경계선을 기준으로 사회적 배제의 여부를 판단할 때 발생하는 경계 설정의 자의성을 극복하고, 다차원적이고 과정적인 사회적 배제의 복합적인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Betti & Verma, 2008).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의 측정에 있어 퍼지 집합이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김교성, 노혜진, 2008; 신동환, 2014),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할 때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김현숙, 김광혁, 2017; 김광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연구목적과 자료의 특성에 따라 그 차원과 측정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선남이, 2013; 강경래, 2014; 양숙자, 2017; 서경숙, 202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사회적 배제의 차원을 경제, 건강, 또래, 학교, 지역사회, 정책이라는 6개의 차원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론적 검토에 따라 이렇게 분류된 6개의 차원은 다시 관계 중심의 사회적 배제(또래 및 학교 차원), 상태 중심의 사회적 배제(경제, 건강, 지역사회 및 정책 차원)라는 두 개의 상위 차원으로 묶었다. 차원별로 해당하는 세부 지표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적 배제의 차원과 측정

개념	차원	항목	측정방법
관계 ¹⁾	또래	친구의 지지	5점 리커트척도 7문항 (범위: 7-35)
		교우관계	4점 리커트척도 5문항 (범위: 4-20)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4점 리커트척도 6문항 (범위: 6-24)
	학교	교사의 지지	5점 리커트척도 6문항 (범위: 6-30)
		교사와의 관계	4점 리커트척도 5문항 (범위: 4-20)
결핍	경제	월평균 가구소득	만 원 단위 (범위: 0-2800)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5점 리커트척도 1문항 (범위: 1-5)
	건강	주관적 건강 인식	4점 리커트척도 1문항 (범위: 1-4)
	지역사회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4점 리커트척도 6문항 (범위: 4-24)
	정책	다문화 지원 경험	1: 다문화 지원 경험 없음
			2: 1회 지원 경험 있음
			3: 중복 지원 경험 있음

이렇게 구성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측정 항목의 수가 서로 다른 지표들을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준화²⁾하고, 표준화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설정

1) 관계 중심의 사회적 배제 차원에 해당하는 또래 및 학교 차원에는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관계 지표의 점수가 낮다는 사실이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이중섭, 이용교, 2009; 김소은, 정익중, 정수정, 2016; 김광현, 2020)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사회적 배제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하였다. 이렇게 표준화된 지표는 각 사회적 배제 차원에서 영향력의 차이에 따른 가중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김교성, 노혜진, 2008; 신동환, 2014; 김현숙, 김광혁, 2017; 김광현, 2020), 각각의 차원별로 지표의 분산계수를 활용하여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를 반영하였고, 같은 차원 내의 서로 다른 지표 간에는 상관계수의 역수를 활용하여 그 영향력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가중치가 부여된 각 차원의 범위는 서로 다르기에, 각 범위가 0에서 1이 될 수 있도록 추가 가중치를 설정하여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2) 독립변인: 언어적응 유형

다문화청소년 1기 패널조사에서는 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외국인 어머니 나라의 언어능력을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4개의 영역을 합하여 각각 한국어 능력지수와 외국어 능력지수를 만들었다. 표 2는 두 가지 언어 능력지수의 기술통계 결과이다. 우선, 한국어 능력지수의 기준점은 4개 영역 모두에서 '매우 잘함'이어야 받을 수 있는 16점으로 하고, 기준점보다 낮으면 '제한 언어구사자'로 더미코딩하였다. 이는 관련 연구가 축적된 북미에서 현지에서 태어나 현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이민자 아동이 주류 언어인 영어를 완전히 구사하지 못하면 언어 부적응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Fry & Lowell, 2003).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기에 한국어 능력점수는 16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16점은 최고 점수라지만, 동시에 중앙값으로 50% 이상의 응답자가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어 능력지수가 기준점 이상인 경우, 외국어 능력지수는 4개 영역 모두에서 '잘하는 편'으로 답해야 나올 수 있는 12점을 기준으로 기준점 보다 낮으면 '단일 언어 사용자', 기준점 이상이면 '이중언어구사자'로 분류하였다. 외국어 능력지수 12점은 90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값으로, 한국어 능력지수가 기준점 이상이면서 외국어 능력지수도 12점 이상이면 "true bilingual(Portes & Rumbaut, 2006)³⁾"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⁴⁾

2) (각 변수의 점수-1/최댓값-1)

3) "단순하게 두 가지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정의를 넘어서 주류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뿐만이 아니라 모국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도 잘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수의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용하는 조작적 정의이다.

4) 본 연구는 관련 분야에서 인용지수가 높은 다양한 선행연구(Chiswick & Miller, 1995; Espenshade & Fu, 1997; Fry & Lowell, 2003; Portes & Rumbaut, 2006; Shin & Alba, 2009)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분류방식을 선택하였다. 기준점의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논문(최인지, 신형진, 2023)과 표 2의 기술통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지수

(단위: 점)

변수	최솟값	사분위수			백분위수	최댓값
		Q1	Q2	Q3	90%	
한국어 능력지수	4	14	16	16	16	16
외국어 능력지수	4	4	8	10	12	16

3) 통제변인

이중 언어 능력을 제외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성별, 결혼 여부, 지역 규모, 아버지 학력, 어머니 출신국, 학교적응)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성별과 지역의 규모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독립변수인 이중언어구사능력의 효과를 조절하는 변수로 통제하였다. 이중언어구사능력은 언어사회화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Chiswick & Gindelsky, 2014; Portes & Schauffler, 1994). 일부 부모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들과 딸을 다르게 사회화하고, 이는 자녀들의 언어적응 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중언어구사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이민자 인구의 규모와 성장 등 생태적 요인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Linton, 2004).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거주지 규모를 읍면과 중소도시를 대도시와 대비하기 위해 분석에 투입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대도시에 비해 농촌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역의 규모에 따라 이중언어에 대한 이질적인 사회적 태도가 사회적 배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가정 여부와 아버지의 학력은 사회적 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으로 통제하였다. 어머니의 출신국은 이중언어구사능력에 있어 언어와 화자가 가진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⁵⁾. 학교는 청소년들의 사회화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장이기에 학교적응은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통제하였다. 학교적응은 패널조사에서 4점 리커트 척도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범위: 5~20), 사회적 배제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로 표준화하였다.

5) 자료에서 어머니 출신국으로 확인 가능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이다. 지역적 범위와 해당 숫자를 고려하여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을 동남아로 묶었다.

3. 분석방법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구사능력이 사회적 배제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PSS 27을 활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다변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사회적 배제 차원들에 대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해 언어적응 유형이 사회적 배제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분석대상의 특징

표 3은 분석대상인 1298명의 특징을 변수의 기술통계를 통해 알아본 결과이다. 한국어는 능숙하게 구사하지만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어 단일구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인 55.3%, 한국어를 완전히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제한 언어구사자가 33.5%,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어머니 나라의 언어도 구사하는 이중언어 구사자가 11.2%로 나타났다.

표 3
분석대상의 특징

		(단위: %, 명)	
변수	속성	백분율	빈도
언어적응 유형	한국어 단일구사자	55.3	718
	제한 언어구사자	33.5	435
	이중언어 구사자	11.2	145
성별	남성	49.1	637
	여성	50.9	661
결혼 상태	결혼, 동거	91.4	1187
	이혼, 별거, 사별	7.9	103
지역 규모	대도시	25.7	333
	중소도시	45.1	585
	읍면	29.3	380
아버지 최종학력	중졸 이하	31.4	389
	고졸	52.6	651
	대졸 이상	15.3	198
어머니 출신국	중국	26.3	342
	일본	35.3	458
	동남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33.0	428
	기타	5.4	70

인구사회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1%가량 적게 나타났으며, 이혼 및 사별, 별거 상태에 있는 결손가정의 청소년 비율이 7.9%로 나타났다. 대도시보다 읍면 또는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 보다는 중졸 이하와 고졸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출신국은 일본, 동남아, 중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언어적응 유형과 사회적 배제의 상관관계

언어적응 유형과 사회적 배제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우선 제한 언어구사자와 이중 언어 구사자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제한 언어구사자는 또래, 학교, 건강,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배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중언어 구사자는 또래, 학교, 경제 차원의 사회적 배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언어적응 유형과 사회적 배제의 상관관계

변수	X	Y	A	B	C	D	E	F
제한 (X)	1							
이중언어 (Y)	-.252**	1						
또래 (A)	.230**	-.103**	1					
학교 (B)	.144**	-.116**	.574**	1				
경제 (C)	.036	-.047	.066*	.045	1			
건강 (D)	.139**	-.053	.256**	.183**	.068*	1		
지역사회 (E)	.104**	-.073**	.384**	.416**	.036	.182**	1	
정책 (F)	-.002	-.013	.035	.067*	-.103**	.052	.004	1

* $p < .05$, ** $p < .01$ (양측검정)

3. 언어적응 유형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차이

언어적응 유형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다변량 분산분석(MANOVA)를 통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공분산 행렬의 동일성에 대한 Box의 검정 결과 신뢰수준 99.9%에서 영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언어적응 유형에 따른 각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변량 검정 결과에 따르면 Pillai의 트레이스, Wilks의 람다, Hotelling의 트레이스, Roy의 최대근 모두 신뢰수준 99.9%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사회적 배제의 차원별로 살펴보면, 99.9% 신뢰수준에서 또래와 학교, 건강, 지역사회 차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중 언어 구사가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결정하는 정도인 R^2 은 유의미한 차원 중에서 또래차원이 0.0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차원이 0.0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언어적응 유형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차이

효과		값	F	p
절편	Pillai의 Trace	.978	9558.481	.000
	Wilks의 Lambda	.022	9558.481	.000
	Hotelling의 Trace	45.123	9558.481	.000
	Roy의 최대근	45.123	9558.481	.000
언어적응 유형	Pillai의 Trace	.069	7.528	.000
	Wilks의 Lambda	.932	7.618	.000
	Hotelling의 Trace	.073	7.708	.000
	Roy의 최대근	.067	14.211	.000
변수		F	p	
수정된 모형	또래 차원 ^a	37.104	.000	
	학교 차원 ^b	18.154	.000	
	경제 차원 ^c	1.796	.166	
	건강 차원 ^d	12.610	.000	
	지역사회 차원 ^e	8.030	.000	
	정책 차원 ^f	.193	.825	
절편	또래 차원 ^a	5309.644	.000	
	학교 차원 ^b	2159.390	.000	
	경제 차원 ^c	45076.787	.000	
	건강 차원 ^d	762.558	.000	
	지역사회 차원 ^e	3564.223	.000	
	정책 차원 ^f	4508.265	.000	
언어적응 유형	또래 차원 ^a	37.104	.000	
	학교 차원 ^b	18.154	.000	
	경제 차원 ^c	1.796	.166	
	건강 차원 ^d	12.610	.000	
	지역사회 차원 ^e	8.030	.000	
	정책 차원 ^f	.193	.825	

a. $R^2=.055(.053)$, b. $R^2=.028(.026)$, c. $R^2=.003(.001)$, d. $R^2=.019(.018)$, e. $R^2=.012(.011)$, f. $R^2=.000(-.001)$

4. 언어적응 유형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분석의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4가지 차원 중 관계 중심의 사회적 배제 개념과 연결되는 또래 및 학교 차원과 상태 중심의 사회적 배제 개념과 연결되는 건강 및 지역사회 차원을 나누어 언어적응 유형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관계 중심의 사회적 배제: 또래와 학교

언어적응 유형이 관계 중심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은 표 6과 같다. 또래 차원의 경우 제한 언어구사자가 한국어 단일구사자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아진다. 모형 1과 모형 2의 R^2 변화량(0.200)과 학교적응의 유의도 및 계수(-0.273)를 볼 때, 또래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교적응이며, 그 정도가 높을수록 배제의 정도도 낮아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제한 언어구사자는 한국어 단일구사자에 비해 또래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 차원의 경우 제한 언어구사자는 한국어 단일구사자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아짐에 반해, 이중언어 구사자는 한국어 단일구사자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또래 차원과 마찬가지로 학교 차원에서도 모형 1과 모형 2의 R^2 변화량(0.294)과 학교적응의 유의도 및 계수(-0.578)를 볼 때,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교적응이다. 또래 차원과 달리 학교 차원에서는 이중언어 구사자의 영향(-0.028)은 통계적 유의도가 유지되었으나, 제한 언어구사자의 영향은 학교적응에 대한 통제와 함께 사라졌다. 이외에도 학교 차원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중졸보다는 고졸인 경우에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아지고(0.016), 어머니 출신이 일본이 아닌 기타지역일 경우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낮아지는 모습(-0.051)을 보인다.

표 6
언어적응 유형이 관계 중심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또래 차원		학교 차원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상수)		.197***	.121***	.239***	.073***
언어 적응 유형	제한 언어구사자	.038***	.024***	.040***	.011
	이중언어 구사자	-.012	-.004	-.044**	-.028*
	(단일 언어구사자)				

		또래 차원		학교 차원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성별	여성				
	(남성)		-.005		.011
가족	결혼				
	(비결혼)		-.004		-.021
아버지 학력	(중졸)				
	고졸		.005		.016*
	대졸 이상		.002		.006
지역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001		.003
	읍면		-.001		-.015
어머니 출신국	(일본)				
	중국		-.003		-.014
	동남아		-.002		-.011
	기타		-.008		-.051**
학교적응			-.273***		-.578***
F		33.388***	34.223***	19.176***	48.681***
R ² (수정된 R ²)		.052(.050)	.252(.245)	.030(.029)	.324(.317)

* $p < 0.05$, ** $p < 0.01$, *** $p < 0.001$

2) 상태 중심의 사회적 배제: 건강과 지역사회

언어적응 유형이 상태 중심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은 표 7과 같다. 건강 차원의 경우 제한 언어구사자가 한국어 단일구사자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효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0.048). 앞선 또래 차원과 학교 차원에 비해 건강 차원에서는 모형 1과 모형 2의 R² 변화량(0.028)은 낮게 나타났지만, 학교적응이 사회적 배제 정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0.273)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역사회 차원의 경우 제한 언어구사자가 한국어 단일구사자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이중언어 구사자는 한국어 단일구사자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제한 언어구사자와 이중언어 구사자 효과가 반대로 나타났던 학교 차원과 달리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언어적응 유형에 따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래 차원과 학교 차원과 마찬가지로 모형1과 모형 2의 R² 변화량(0.198)과 학교적응의 유의도 및 계수(-0.321)를 볼 때, 학교적응이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다른 차원과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았고, 결혼가정이 비결혼가정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규모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중소도시와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예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구성비가 높기에, 다수성 효과(critical mass)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동남아 출신(-0.017)이나 기타지역 출신(-0.029) 어머니를 둔 청소년들이 일본 출신 어머니를 둔 청소년보다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 역시 특기할 만하다.

표 7

언어적응 유형이 상태 중심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건강 차원		지역사회 차원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상수)		.196***	.114***	.263***	.515***
언어 적응 유형	제한 언어구사자	.059***	.048***	.026**	.009
	이중언어 구사자	-.020	-.013	-.021 [†]	-.016
	(단일 언어구사자)				
성별	여성		.013		.022**
	(남성)				
가족	결혼		.018		.035*
	(비결혼)				
아버지 학력	(중졸)				
	고졸		.023		.011
	대졸 이상		.033		.000
지역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022		-.018*
	읍면		-.017		-.075***
어머니 출신국	(일본)				
	중국		.005		-.013
	동남아		.008		-.017*
	기타		-.013		-.029 [†]
학교적응			-.241***		-.321***
F		11.517***	4.936***	8.679***	27.381***
R ² (수정된 R ²)		.018(.017)	.046(.037)	.014(.012)	.212(.205)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1기 패널조사 5년차(2015)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적응 유형에 따라 사회적 배제의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적응과 관련된 북미의 선행연구는 주로 학업 성취나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취업, 임금 등)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사회적 배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는 이중언어구사와 사회적 배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여러 사회적 배제의 차원 중 또래, 학교, 건강, 지역사회 차원에서 언어적응 결과에 따른 영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국어 능력이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 언어구사자는 또래, 학교, 건강, 지역사회 차원 모두에서 한국어 단일구사자보다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력한 동화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높이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래 및 건강 차원에서의 효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나,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효과는 통제 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적응,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학교적응을 비롯한 지역규모, 성별 및 가족 등이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한편, 북미의 연구 결과에서 이중언어구사능력이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본 연구 결과에서 이중언어 구사자들은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한국어 단일구사자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학교 차원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언어의 지위 및 화자의 지위를 추론하기 위한 대리변수인 어머니의 출신국을 살펴볼 때, 학교와 지역사회 두 차원 모두 일본보다 기타지역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낮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동남아 어머니를 둔 경우가 일본인인 경우보다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 1기 패널조사의 설문에 어머니의 출신국이 '기타'인 경우 개방형 질문으로 출신국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 응답이 공개되지 않아, 언어 및 화자의 지위를 추론하기 어렵다. 동남아와 기타지역 어머니를 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인 필리핀, 기타지역은 북미를 비롯한 영어권 국가가 어머니의 출신국이라면 영어의 언어 지위 효과가 드러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 국적의 어머니를 가진 경우 대부분이 타갈로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93.4%), 기타지역 역시 대부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고(95.7%) 응답하였기에 영어의 언어 지위가

아닌 다른 효과가 학교 차원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언어 및 화자의 지위보다는 그들의 언어적응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차원의 경우 지역 규모에 따른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기에,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에 동남아와 기타지역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배제 정도도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 이중언어 구사자가 한국어 단일구사자보다 사회적 배제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어 능력이 기준점에 부합하고 학교적응을 잘하는 경우, 다른 언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교사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중언어구사의 긍정적인 효과가 또래 차원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점은 또래 차원에서는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이 관계 악화나 지지, 괴롭힘에서의 보호 요인이 되지 못함을 암시한다. 또한, 한국어를 상대적으로 잘 구사하지 못하면(제한 언어구사자) 또래 차원에서도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보아, 동화주의의 강화가 또래압력으로부터 비롯되는 정도가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 차원에서 제한 언어구사자의 사회적 배제가 높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의 의료 서비스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 이중언어능력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북미의 연구결과는 이주민의 언어적응 유형이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였고,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화자 및 언어 지위에 따라 다양한 배제와 포용의 양상이 나타났던 북미와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완전한 한국어 구사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언어능력은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이로 볼 때, 한국사회는 구사 언어의 다양성보다는 획일화된 동화주의, 즉 한국어의 완벽한 구사를 다문화 청소년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의 완벽한 구사가 전제된다면 언어의 다양성은 사회적 배제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면 관계 측면과 상태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 주류언어(한국어)를 통해 교류하는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넘어 건강과 지역사회에서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완전한 습득이 선결되어야 하며,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경래 (2014). 소년비행의 원인으로서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 **소년보호연구**, 26, 371-409.
- 교육부 (2023). **2023 교육통계연보**. 세종: 교육부.
- 김광현 (2020).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유형과 우울의 관계: 퍼지집합이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연구**, 51(1), 173-206. doi:10.16999/kasws.2020.51.1.173
- 김교성, 노혜진 (2008).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133-162. doi:10.15855/swp.2008..34.133
- 김소은, 정익중, 정수정 (2016). 아동의 사회적 배제의 영향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8(3), 1-23. doi:10.19034/KAYW.2016.18.3.01
- 김현숙, 김광혁 (2017). 사회적 배제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9, 25-48.
- 김현주, 김준영 (2008).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수준과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27.
- _____ (2010).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개인, 가정, 사회 환경과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7(4), 27-46.
- 서경숙 (2023). 사회적 배제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국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doi:10.23216/dgu.0000000085922.11020.0000532
- 선남이 (201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동환 (2014).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GRI연구논총**, 16(3), 71-96. doi:10.23286/gri.2014.16.3.003
- 양숙자 (2017).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중섭, 이용교 (2009).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7), 1-27.
- 정수정, 김소은, 정익중 (2017). 비경제적 사회적 배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불안,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1(4), 605-629. doi:10.21459/kccr.2017.21.4.605
- 최인지, 신형진 (2023). 다문화청소년의 언어적응 유형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 **한국인구학**, 46(3), 33-62. doi:10.31693/kjps.2023.09.46.3.2
- 최천근, 김복태 (2021). 여성결혼이민가구의 부의 대물림: 부모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자녀

- 교육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국정관리연구*, 16(3), 257-277. doi:10.16973/jgs.2021.16.3.009
- 최혜지 (2019).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 서울: 집문당.
- 통계청 (2022). *인구총조사*. 대전: 통계청.
- Bak, C. K. (2018). Definitions and Measurement of Social Exclusion. *Advances in Applied Sociology*, 8, 422-443. doi:10.4236/aasoci.2018.85025
- Betti, G., & Verma, V. (2008). Fuzzy Measures of the incidence of relative poverty and deprivation: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Statist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17, 225-250. doi:10.1007/s10260-007-0062-8
- Carliner, G. (1981). Wage Differences by Language Group and the Market for Language Skills in Canada. *Journal of Human Resources*, 16(3), 384-399. doi:10.2307/145627
- Chiswick, B. R., & Gindelsky, M. (2014). Determinants of Bilingualism among Children. *IZA Discussion Papers*, 8488. doi:10.2139/ssrn.2505350
- Espenshade, T. J., & Fu, H. (1997). An Analysis of English-Language Proficiency Among US Immigra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2), 288-305. doi:10.2307/2657305
- Fry, R., & Lowell, B. L. (2003). The Value of Bilingualism in the US Labor Market. *ILR Review*, 57(1), 128-140. doi:10.2307/3590985
- Hitti, A., Mulvey, K. L., & Killen, M. (2011). Social Exclusion in Adolescence. In R. J. R. Levesque (Ed.), *Encyclopedia of Adolescence* (pp. 2783-2792). New York: Springer. doi:10.1007/978-3-319-32132-5_50-2
- Killen, M., Sinno, S., & Margie, N. G. (2007). Children's Experiences and judgements about group exclusion and inclusion. In R. V. Kail (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pp. 173-218). New York: Elsevier. doi:10.1016/b978-0-12-009735-7.50010-4
- Levitas, L. (2000). What is social exclusion?. In D. Gordon & P. Townsend (Eds.), *Breadline Europe* (pp. 357-384). London: Policy Press. doi:10.56687/9781447366584-017
- Linton, A. (2004). A Critical Mass Model of Bilingualism among US-born Hispanics. *Social Forces*, 83(1), 279-314. doi:10.1353/sof.2004.0119
- Pendakur, K., & Pendakur, R. (2002). Language as Both Human Capital and Ethnicity.

-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6(1), 147-177. doi:10.1111/j.1747-7379.2002.tb00075.x
- Piller, I. (2012). Multilingualism and Social Exclusion. In M. Martin-Jones, A. Blackledge & A. Creese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Multilingualism* (pp. 281-296). London: Routledge. doi:10.4324/9780203154427-26
- Plenty, S., & Jonsson, J. O. (2017). Social Exclusion among Peers: The Role of immigrant Status and Classroom Immigrant Density.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6, 1275-1288. doi:10.1007/s10964-016-0564-5
- Portes, A., & Schauffler, R. (1994). Language and the Second Generation: Bilingualism Yesterday and Toda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4), 640-661. doi:10.2307/2547152
- Portes, A., & Rumbaut, R. G. (2006).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in, H. J., & Alba, R. (2009). The Economic Value of Bilingualism for Asians and Hispanics. *Sociological Forum*, 24(2), 254-275. doi:10.1111/j.1573-7861.2009.01099.x
- Tajfel, H., & Turner, J. C. (2000).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M. J. Hatch & M. Schultz (Eds.), *Organizational Identity: A Reader* (pp. 56-6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oso/9780199269464.003.0005
- Taket, A., Crisp, B. R., Nevill, A., Lamaro, G., Graham, M., & Barter-Godfrey, Sarah. (eds.). (2009). *Theorising Social Exclusion*. New York: Routledge. doi:10.4324/9780203874646

ABSTRACT

Bilingualism and social exclusion among multicultural youth in South Korea

Lee, Juneyeop* · Shin, Hyou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varies by type of linguistic acculturation among multicultural youth in South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bilingualism, which reflects language and speaker status among Korean multicultural youth and may influence social exclusion in multiple dimensions.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North America have suggested that bilingualism may increase the likelihood of social exclusion, depending on language and speaker status. Data from the fifth wave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conducted in 2015, were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linguistic acculturation on social exclusion among multicultural youth.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s classified as “limited Korean speakers” had higher levels of social exclusion in all four dimensions(peer, school, health, and community) compared to “monolingual Korean speakers”. In contrast, “bilingual speakers” had the lowest levels of social exclusion among the three linguistic acculturation type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for multicultural youth in South Korea to overcome multiple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they must first and foremost be proficient in Korean, the country’s only official language.

Key Words: multicultural youth, bilingualism, social exclusion, linguistic acculturation,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ellow

**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